

국제정원박람회장 첫 선... 3만명 '특별한 추억'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오는 31일 개막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지난 25일 프레오피 행사를 진행했다. 특별 체험권을 받은 3만여 명의 시민들이 사전관람을 위해 박람회장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 순천시 제공

조직위, 25일 프레오피 행사 가든스테이션 관람객에 인기 도보 동선 겹침 없도록 조성 사람 중심 정원 구현 배려도

“2023년 새로운 정원을 담은 보물상자가 열렸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오는 31일 개막식에 이어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지난 25일 시민 3만명이 박람회장을 찾은 프레오피행사가 펼쳐졌다.

26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프레오피 행사에 시민들이 몰리며 박람회 성공 개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박람회장 프레오피는 ‘특별 체험권’을 지닌 3만명에게 박람회장을 사전 관람할 기회를 제공했다.

지난 15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특별체험권’ 예매는 예매 시작 일주일 만에 3만개가 품절 되는 등 박람회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프레오피행사가 시작되자 국가정원은 긴 줄을 이뤘으며 오전 10시 개장과 동시에 입장했다.

도심의 답답함을 털어버릴 드넓은 잔디와 탁 트인 시야에 펼쳐지는 톤&톤의



박람회장을 돌아보고 있는 노관규 시장.

아름다운 화훼 연출은 관람객들을 한눈에 사로잡으며 국가정원 최고의 공간 연출이라는 평을 받았다.

온라인에 주야간 최고 포토 스팟 존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든스테이션과 벚꽃을 구경할 수 있는 정원드림호 체험은 매진됐다.

꼬마 관람객들을 위한 더 넓어진 ‘물새 놀이터’, 화려한 핑크색을 띤 흥화무리, 알파카와 동물원,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꿈틀 놀이터’ 등은 가족 관람객에게 인기를 끌었다.

순천정원박람회장에서 주목할 또다른 점은 국가정원 내 관람차 동선을 외곽으로 크게 돌려 도보 동선과 겹침 없도록 사람 중심의 정원을 구현했다.

가든스테이 체험객은 “198만㎡(60만평)의 정원에서 만찬과 함께 즐기는 하룻밤은 나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며 “다시 한번 소중한 사람들과 찾고 싶다. 정원에서 맞이하는 아침을 꼭 체험해보시길 바란다”고 체험 소감을 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프레오피 소식에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면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며 감사드린다. 앞으로 남은 기간 완성도 높은 박람회장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오는 31일 오전 그린광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4월 1일~10월 31일까지 7개월간 대장정을 시작한다. 순천=배서준 기자

시민걷기왕 선발대회 접수 순천시, 내달 21일까지 모집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역사회 건강 지표인 걷기 실천율, 신체활동 증가율 향상을 위해 2023 시민 걷기왕 선발대회를 개최하며 걷기왕에 도전할 순천시민을 다음달 21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4월부터 9월까지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을 통해 실시한다. 걷기왕은 100명을 선정하며 선정된 시민에 순천사랑상품권 3만원을 지급한다.

선정은 1일 1만보 제한으로 매일 10일 이상 걸어야 하며 6개월 동안 120만 보 이상 걸어 근육량은 늘리고 체지방은 3㎏ 이상 감소시킨 시민을 걷기왕으로 선정한다. 도전을 원하는 시민은 핸드폰 어플인 ‘워크온’에서 순천시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보건소 2층 운동영양실을 방문하여 사전 인바디 검사(체지방 측정)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순천=배서준 기자

역세권 생태도심텃밭 분양 순천시, 4~12월 임대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7일까지 ‘역세권 생태도심텃밭’ 분양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분양 규모는 구좌당 6㎡(2평 규모) 총 10구좌로 4월~12월 임대한다. 1가구 혹은 1팀1구좌 원칙이며 분양료는 1만 5940원이다. 조곡동에 있으며 역세권 도시재생(조곡·풍덕·덕원) 주민과 생활권자를 1순위로 순천시민을 2순위로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분양 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해 역세권현장지원센터(역전2길 16, 2층)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sc_ysk@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농어업인 공익수당 조기 지급 순천시, 27일부터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농어업 경영비 증가에 따른 농·어가 소득 안정과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해 27일부터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조기에 일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이 가진 공익적·다원적 기능 증진 및 농어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가당 60만원이 지원된다.

2023년도 지급대상은 1만 5258명으로 총 92억원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수당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동지역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에 맞춰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를 방문하고 읍면지역과 도사동은 마을별 지정된 수령날짜에 맞춰 주소지 농협에서 수령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상환이 일괄(조기) 지급으로 농·어업인 경영 안정과 실물 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농·어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농·어업인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50% 지원 ‘농가 경영부담 완화’

내달 5일까지 읍면동에 신청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가중된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

하는 농업경영주로서,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되어 있으며 전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농사용(을) 전기요금 기본요금 인상분과 기후환경요금,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질 인상액의 50%를 지원한다. 킬

로와트시(kwh)당 지원단가는 전년도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분에 대해 9.05원,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2개월분에 대해 14.1원을 적용한다.

다음달 5일까지 농사용 전기 사용 시설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하고 한국전력공사에 개인별 사

용량을 확인, 대상자를 확정 후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